

# 美國과 日本의 國家競爭力<sup>(1)</sup>

宋 丙 洛

미국과 일본은 국가경쟁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선진국 중 미국은 각종 자연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이나 일본은 가장 빈약한 나라이다. 미국은 기존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고 또한 없는 요인을 창출함으로써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없는 자원의 불리성을 잘 극복하고 또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기를 수 있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다종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세운 나라이고 또한 개인주의적 국가이므로 미국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하나 하나가 독자적,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후발 선진국인 일본은 유럽선진국이나 미국을 따라 잡기 위하여 기업들이 서로 모여 힘을 합쳐서 케이레쓰나 그룹을 만들어 성장하며 경쟁했다. 되풀이하면 미국의 기업은 개인주의적 기업, 일본의 기업은 공동체주의적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 미국은 부존자원과 창출된 자원을 다같이 잘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므로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앞서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창출된 요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산업과 경쟁력의 차이를 계속 크게 줄여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산업에 있어서 미국을 오히려 크게 앞서고 있다.

## 1. 序 論

국가경쟁력에 관한 세계적 연구기관인 스위스의 IMD(국제경영개발원)와 WEF(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선진국 중 미국과 일본은 국가경쟁력이 각각 세계 제1위 및 제2위의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는 서로 치열한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기관차이며 西洋式 資本主義와 發展모형을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반대로 일본은 세계21개 선진국 중 유일하게 서구국가가 아닌 선진국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동아시아 모형을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제1위 및 제2위의 교역 대상 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은 기업은 일본식, 민주주의는 미국식

(1) 이 연구를 지원해 주신 일주학술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국가경쟁력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스위스의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를 방문하여 연구책임자인 Peter Lorange 소장과 Stephane Garelli 박사, 그리고 하바드 경영대학을 방문하여 Michael E. Porter 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나 연구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으로 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해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은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 나라이며 또한 많은 차이도 있는 나라이다. 인구의 차이, 국토의 차이, 기후의 차이, 인종의 차이, 역사의 차이 등이 몹시 크다.

기업과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企業目標에 있어서 미국 기업은 가능한 한 이윤을 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일본의 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企業의 性格에 있어서도 미국기업은 개인주의적인 기업이고 일본기업은 공동체주의적인 기업이다. 일본에서는 기업구성원들이 모두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라는 사상을 강하게 갖고 있다. 利潤의 使用에 있어서도 미국기업은 이윤을 가급적 개인을 위한 배당에 사용하려고 하나 일본기업은 가급적 장래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重視하는 對象에 있어서도 미국기업은 주주를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 고객과 근로자의 순으로 중시한다. 그러나 일본기업은 반대로 근로자를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으로 고객과 주주의 순서로 중시한다. 企業의 所有面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을 위한 연금공단 등이 주식의 60~70%를 소유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인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체인 같은 그룹의 계열기업들이 서로 품앗이 식으로 소유를 해준다. 기업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적인 미국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독점금지법으로 기업그룹을 모두 해산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1868년 명치유신부터 지금까지 기업을 그룹 식으로 계속 육성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表 1>에 요약된 바와도 같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과 산업은 국제경쟁력에도 큰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경쟁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2. 國家競爭力 分析의 틀

국가경쟁력에 관한 지금까지의 세계적인 대표적 연구는 다음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가. 스위스 IMD(國際經營開發院)의 競爭力分析方法

이는 다음 절에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 나. 하버드 經營大 마이클 포터의 分析方法

이는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제4절에서 논의된다.

위의 두 가지 중 스위스의 연구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

〈表 1〉 美國의 企業과 日本企業의 差異

	미국의 기업	일본의 기업
1. 기업의 목표	이윤극대화	시장점유율, 성장률 또는 부가가치의 극대화
2. 기업의 성격	단기이윤극대화형기업	사세확장형기업 또는 정복형기업
3. 이윤의 사용	배당의 증가로 개인주주의 소비 증대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시장 점유율 제고
4. 기업이 중시하는 대상	주주-고객-근로자의 순	근로자-고객-주주의 순
5. 기업그룹	일본이나 한국식 그룹은 불법	기업집단의 형성을 장려
6. 기업의 소유자	공개회사주식의 60~70%를 개인이나 연금공단 등이 소유	그룹의 계열은행이나 기업들이 소유
7. 근로자에 대한 태도와 교육	최소의 비용으로 고용하거나 해고 대상으로 간주, 교육은 전문직중 중심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 종신고용이 일반적임. 사원으로서의 일반교육, 회사 사람 만드는 교육강조. 화합과 자기희생 강조.
8. 노동조합	산업별조합	기업별조합
9. 임금제도	기능에 따른 임금	연공서열제도
10. 회사매매에 대한 태도	이윤극대화를 위해 전체 또는 분할 매각은 언제나 가능. M&A(흡수와 합병)가 성행한다.	최후 수단이 아니면 매각은 하지 않음. M&A가 많지 않다.
11. 기업전략의 단계	개별기업단계의 전략뿐임.	개별기업, 그룹 및 국가 단위에서의 전략이 모두 가능

과는 『世界競爭力報告書』(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부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논의되는 국가경쟁력 관계기사는 주로 이와 관련된 것이다. 반대로 마이클 포오터교수의 국가경쟁력이론은 『國家競爭優位論』(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으로서 이는 곧 그의 저서의 명칭과도 같은데, 비교우위이론의 대응개념으로 1990년에 발표된 것이다. 이 이론은 아직도 전세계에 보급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야 비로서 많이 논의되기 시작했음은 물론이다. 스위스의 연구는 기업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으며 마이클 포오터의 연구는 산업차원에서의 경쟁력을 논의한 것이다.

다. 兩者의 補完性

기업차원이나 산업차원 모두에서 국가경쟁력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포오터교수의 분석방법은 스위스 IMD의 분석방법이 포함하지 않은 요인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이해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분석방법의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과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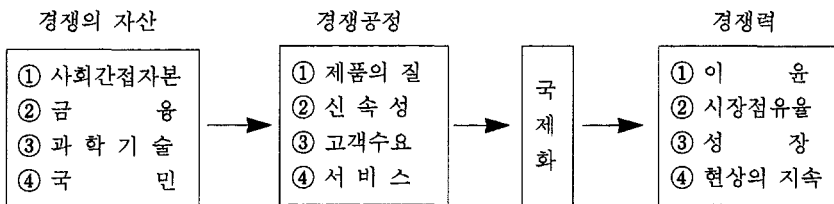
### 3. 企業과 國家의 競爭力

1995년에 발표된 『世界競爭力報告書』에 따르면 IMD는 세계 49개국의 국가경쟁력을 378개의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수많은 통계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IMD는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통계수집이 가능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IMD와 WEF가 공동으로 『世界競爭力報告書』를 작성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IMD가 단독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IMD는 이 378개의 지표를 크게 8개, 즉 ① 사회간접자본, ② 금융, ③ 과학과 기술, ④ 국민, ⑤ 경영, ⑥ 정부, ⑦ 국제화 그리고 ⑧ 국내경제력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8대 경쟁력 요인들이 공동으로 작용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8대 경쟁력의 세부결정 요인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46개, 금융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35개, 과학과 기술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42개, 경영을 나타내는 지표는 37개, 국민의 자질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56개, 정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54개, 국제화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60개 그리고 국내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48개나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요인들이 국가경쟁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8대 요인이 구체적으로 경쟁력을 창출하는 과정은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 여덟 개 요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창출하게 되는가? 이를 약술하기로 하자. 우선 물건의 생산에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필요하듯이 경쟁력의 생산 또는 창출에는 '사회간접자본', '금융', '과학기술' 및 '국민'이라는 4가지의 競

<表 2> 國家競爭力 創出公式



爭資産이 필요하다. 이들 경쟁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생산이 되는데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競爭工程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질, 고객수요에 대한 반응, 신속성 그리고 좋은 서비스 등이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차원에서의 '經營'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 경쟁자산을 국제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政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國際化'가 잘되어야 한다. 국제화가 잘될 때 비로소 국제경쟁력이 창출된다. 그럼 국가경쟁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측정되는가? IMD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은 나라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게 되는데 전세계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① 利潤. 미국과 영국의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이 이윤에 의해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미식 기업이론의 전통 때문이다.

② 市場占有率.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목표가 이윤이 아니라 시장점유율이라는 것이다. 즉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일본기업의 목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의 증가 여부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③ 成長性. 한국과 같은 신생공업국의 기업의 목표는 성장이라는 것이다. 미국기업과 같은 이윤도 아니고 일본기업과 같은 시장점유율도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고 공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신생공업국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이 가급적 빨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④ 現狀維持. 현재 세계제일의 위치에 올라간 독일의 벤츠나 지멘스 같은 유럽선진국의 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곧 현상유지가 기업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선진국기업의 경우에는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경쟁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쟁자산, 경쟁공정, 국제화 및 경쟁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表 2>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IMD는 國際競爭力의 10가지 黃金律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쟁자산과 경쟁공정은 경쟁력의 양면을 나타낸다.
- (2) 어느 나라에서나 성공적인 경쟁공정화는 부를 증진시킨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쟁자산의 창출이 중요하게 된다.

- (3) 부유하면서 경쟁력이 약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연 자원이나 기존 산업과 같은 현재 있는 경쟁자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렇게 된다.
- (4) 가난한 나라는 축적된 경쟁자산은 별로 없지만 경쟁공정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일본, 싱가포르 등이 그 예이다.
- (5) 그러므로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높게 될 수도 있다.
- (6) 국제화는 매력성과 공격성 또는 양자에 다 기반을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는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매력적이긴 하나 공격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공격적이나 다른 나라 기업의 한국진출에 있어서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미국은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공격적이며 또 다른 나라 기업의 미국투자에 있어서도 매력적이다.
- (7)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생산성이나 성장성과 같은 硬性基準(hard criterion)과 일반적으로 측정이 쉽지 않은 교육이나 국민의 태도 등과 같은 軟性基準(soft criterion)에 의하여 측정된다.
- (8) 경성기준(hard criterion)은 보통 몇 달, 몇 년 등으로 사이클은 짧고 연성기준(soft criterion)은 수십 년 또는 몇 세대 등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다.
- (9)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연성기준(soft criterion)에 더 의존하게 된다. 즉 저임금 노동력에서 숙련 노동력으로 이행하는 것과 같다.
- (10) 경쟁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상의 10가지가 국제경쟁력의 황금률이라고 한다.

위의 기준을 토대로 IMD는 미국과 일본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1986년에서 1993년까지 8년간은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미국을 앞섰음을 물론 세계제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4년에는 일본의 정치불안과 경제침체 등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국제경쟁력은 미국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8년만에 처음으로 미국경쟁력이 일본의 경쟁력을 앞서게 된 것이다. 8개의 경쟁력지표 즉 사회간접자본, 경영, 과학기술, 국민, 금융, 정부, 국제화 및 국내경쟁력으로 볼 때 미국은 국내경쟁력과 국제화 및 금융에 있어서 세계제일의 수준에 있고 일본은 반대로 경영과 과학기술에 있어서 세계제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IMD는 경영에 있어서 세계제일인 나라는 일본임을 1981년부터 계속강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일본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제일의 상태에 있음은 지적하고 있음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이들 여덟 가지 요인 중 미국이 일본을 앞서는 것은 정부와 사회간접자본이며 일본이 미국에 앞서는 것은 국민의 자질과

태도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5년 48개의 선·후진국 중 국제경쟁력이 24등으로 나타났으며 24개 후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칠레,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다음의 7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48개국 중 1등, 인구특성에 있어서는 3등, 근로자의 근로자세에 있어서는 3등, 교육에 있어서는 5등, 자본형성에 있어서는 5등 등이다. 그러나 농업, 정부, 금융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아주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産業과 國家의 競爭力

마이클 포오터의 경쟁력이론은 産業의 競爭力理論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요지는 어떤 나라의 경쟁력이든 산업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쟁력은 자동차산업이나 전자산업에 있는 것이지 자동차산업 중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회사 즉 토요다 자동차나 닛산 자동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통 산업전체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제경쟁력은 조선업 전체에 있는 것이지 대우조선이나 현대조선 어느 한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한국의 삼성반도체, 현대전자반도체, LG반도체 등 반도체산업전체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느냐를 규명하는 것이 포오터의 경쟁력의 취지이다.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인이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든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그는 <表 3>에서와 같이 표시한다. 그는 <表 3>에서와 같이 ①-④까지의 4가지 요인은 마치 다이아몬드 모양과 같다고 하여 이를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①-④ 까지를 산업의 국가경쟁력의 근본결정요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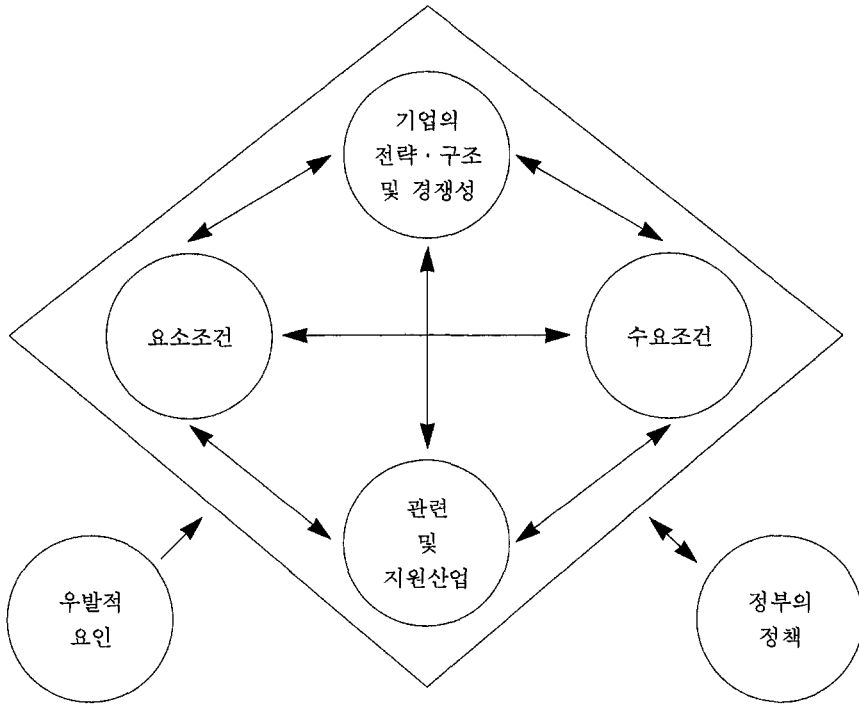
- ① 요소조건
- ② 수요조건
- ③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성
- ④ 관련 및 지원산업
- ⑤ 정부정책
- ⑥ 환경적 및 우발적 요인

그러면 먼저 요소조건부터 보도록 하자.

##### 4. 1. 要素條件

요소조건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은 농업, 임업, 광

〈表 3〉 競爭力의 決定 모델(다이아몬드 모델)



물, 자원 등 資源的 要素가 풍부하다. 미국에는 없는 자원이 없을 정도로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는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또 풍부한 자원 때문에 경쟁력을 갖게 된 제조업도 많다. 선진국 중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많으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하게 된 나라는 스웨덴과 미국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수가 적다.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나 호주는 자원 수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그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경쟁력은 별로 없다. 미국은 賦存資源의 요소에 있어서는 물론 創出한 要素에 있어서도 세계제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은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국가위기의식 때문에 요소창출을 위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항공, 전자, 기계, 핵에너지, 의료, 합성물질 등의 기술의 돌파구를 열었다. 이 때부터 미국은 기초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세계 선두주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학과 합성물질 및 페니실린 등 의료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인 독일의 특허상품 등의 자산을 몰수하여 미국에 많이 판매하였다. 미국은 또한 이른바 페이퍼클립(paper clip)작전을 통하여 독일 과학자를 조직적으로 미국으로 유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각분야의 두뇌를 전세계로



부터 유치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나 또는 직후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다. 핵심적인 기술과 사회간접자본투자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서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대대적으로 육성되었다.

미국의 요소창출의 유명한 예는 大學教育, 특히 그 유명한 '지아이 빌'(GI Bill)이다. 정부는 GI Bill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백만의 제대 군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하여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자질이 크게 향상되었음 물론이다. 미국은 60년대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 미국의 교육제도는 기준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수준도 세계 최고이다. 그러므로 60년대부터 수많은 나라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몰려왔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가지고 있다. 광활한 국토를 연결하는 수송과 통신사업의 민영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투자가 혁신을 크게 촉진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었고 특히 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의 이자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촉진했다. 미국의 생산요소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또한 정부나 개인이나 기업 모두의 요소창출을 위한 노력과 투자도 광범위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자연요소의 부족이 심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농업, 어업, 광업과 관련하여 경쟁력이 높은 일본산업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섬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항구는 많은 편이다. 자연자원의 부족은 심한 데 비하여 人的資源은 아주 풍부한 높은 편이다. 일본은 교육중시의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강 있고 근면하고 협동심이 강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일본은 인구 당 엔지니어의 수가 미국보다 많으며 엔지니어링 분야의 미국유학에 있어서 일본은 유럽의 어느 선진국보다 크게 앞선다. 하바드대학의 투웨이밍교수에 따르면 미국에는 엔지니어 1명당 변호사가 7명이나 될 정도이나 일본에는 반대로 변호사 1명당 엔지니어가 7명일 정도로 엔지니어가 많다. 일본은 없는 요소를 만들어 내거나 창출하거나 있는 요소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세계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要素創出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 심지어 미국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자원부족이 심하였으나 국내 저축이 세계 제1위일 정도로 높아서 필요한 투자자금의 국내조달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일본의 기업들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옛날부터 일본에는 시골마다 우편저축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본국민은 금융기관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저축된 돈은 또한 정부가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자본이 오히려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외국문화 수입에도 오랜 전통이 있다. 일본 전체 R&D 투자는 GNP의 3%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일본의 기술투자는 국방산업이 아니라 거의 민간산업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일본의 기업들은 신 기술분야에 공동투자도 많이 한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기술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정보분야 요소창출에 있어서 세계제일이라고 한다. 일본에는 미국의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이 없으나 경제정보 수집에 있어서 세계제일이 되는 것은 일본 특유의 總合商社와 企業그룹制度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개인, 언론기관, 민간단체, 정부 부처 등이 수많은 경제관계 보고서와 책을 출판한다. 국민들은 가위 경제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은 經濟情報綜合에 있어서도 세계제일이며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못 당한다. 일본인은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없는 요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세계제일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자원이 없는 일본인의 살 길은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해야 된다는 즉 '加工貿易'을 해야 살 수 있고 따라서 스스로의 능력도 빨리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일본의 자원부족은 합성물질, 세라믹 등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높은 해외에너지 의존도는 일본으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에 있어서 세계제일이 되도록 만들었다. 일본의 철강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제일이다. 자원절약 캠페인은 일본의 TV와 음향기기 등을 전기소모가 적게 만들고 단순화하여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했다. 그리고 서구선진국으로부터의 지리적 고립 때문에 일본은 컨테이너, 화물수송, 특수화물수송, 대형선박이나 항구 등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또 일본은 고밀도 국가이다. 심한 공간부족이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空間節約型 在庫管理制度인 JIT 생산제도에 있어서 세계선도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일본은 세계 에너지파동 등 파동이 있을 때마다 또는 역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잘 극복하여 경쟁력을 올렸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쟁력 역사는 불리한 역경의 성공적 극복의 역사로 설명이 된다.

#### 4.2. 需要條件

수요조건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은 국내의 인종, 기후, 지형, 산업이 다종 다양함으로 시장수요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민이나 산업에 의한 수요는 세계 수요를 선도한다. 그러므로 미국에는 없는 산업이 없고 또 그 많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이런 수요조건 때문에도 세계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반이나 차지할 정도로 國內市場이 방대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미국의 산업들은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국제적인 성공을 경시한 경우도 많았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직후 극심한 물자부족에 허덕일 때 미국은 이미 최초의 大量消費社會가 되어 있었다. 방대한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의 결과 미국은 표준화되고 저렴하고 대량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생산과 보급에 있어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상승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전통경시풍조와 여가선용 습성들과 맞물려 편의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중영화, 대중용사진기, 팝 뮤직, 일회용 볼펜, 일회용 종이 등 각종 편의점과 패스트 후드 관련 신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였다. 이는 곧이어 전세계에 보급되었다. 그리고 便宜指向的인 生活양식과 셀프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성향 때문에 각종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발달되었다. 미국은 대량 소비재의 제조와 판매 및 관련서비스를 보급한 첫 번째 나라이다. 그리고 다종다양한 소비재의 생산국이자 보급국이고 현대 마케팅기술을 시작한 나라이며 각종 소비자서비스산업에 유력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미국은 상업TV를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이다. 상업TV를 그 다음으로 시작한 나라보다 12년이나 빨리 시작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TV에 대한 정부개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케팅분야의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코카 콜라, 세제류, 치약, 담배, 화장품, 화장지 등 대량 소비제품의 이미지 빌딩기술에 있어서도 세계제일이다. 이런 제품을 전세계에 보급시켰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청바지, 햄버거, 코카 콜라, 팝 뮤직 등은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며 미국문화의 세계보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은 고층 건물에 대한 많은 수요 때문에 건설기술과 자재 및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했다. 냉, 난방시설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종다양한 인종과 다종다양한 질병 때문에 미국의 병원과 의약품 산업 및 보건의료제도 분야에서도 세계제일이다. 그리고 거대한 국방수요 때문에 항공관련산업, 컴퓨터, 반도체산업도 잘 발달되었다. 미국의 산업들은 주로 국내의 수요중심으로 성장했으나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2차 대전으로 다른 선진국의 산업이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럽선진국에서는 산업의 공백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산업들이 자연적으로 외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미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 그리고 미국에 유학 오는 수많은 해외유학생 그리고 해외에 진출한 수많은 미국기업들이 미국제품에 대한 방대한 해외수요자 역할을 했다. 그러

므로 미국문화와 제품과 가치관의 세계보급과 진출이 촉진되었다. 이런 요소 조건들이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였다.

일본의 수요조건을 보면 일본에는 1억 2천만의 고소득 인구가 있다. 그리고 국토가 좁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야말로 바글바글 뒤엉켜서 살아간다. 그리고 인종, 문화, 관습도 같기 때문에 수요도 같아지는 경향이 심하다. 그러므로 국내수요가 좁은 땅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제품을 선전하면 모두가 따라서 사는 밴드웨건 效果 같은 것이 크게 작용한다. 때문에 국민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카메라, 같은 가전제품을 다투어 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본사람들은 집이 좁기 때문에 집에 손님을 초대하거나 집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동차나 전자제품, 카메라 등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전 국민들이 모두 따라서 사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이 좋은 신제품을 개발하자마자 북치고 장구치고 선전하면 국민들은 따라 사게 되므로 그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은 주택이나 사무실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은 손에 들고 다니기 쉽고 조용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콤팩트한 오디오나 가전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전자피아노도 그 예이다. 그리고 좁은 사무실과 창고는 소형트럭 소형공구 및 소형사무용기기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다행히 이런 것이 훗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유행은 이 점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다.

일본의 문화는 視覺文化이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 및 모양과 끝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공동체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메이커와의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므로 가령 소니 회사 제품을 사는 사람은 값이 약간 비싸도 계속 소니 회사 제품을 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품질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신제품이 다른 회사보다 빨리 시판될 때는 사정이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기업들은 경쟁회사 고객을 빼내기 위해 新製品開發을 위하여 사력을 다한다.

그리고 일본기업은 국내의 복잡한 유통체계를 통한 마케팅 경험이 풍부함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그 마케팅을 잘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슈퍼마켓이나 드럭 스토어 등 대량 유통업체를 통하여 판매되는 소비자 포장제품 마케팅에는 약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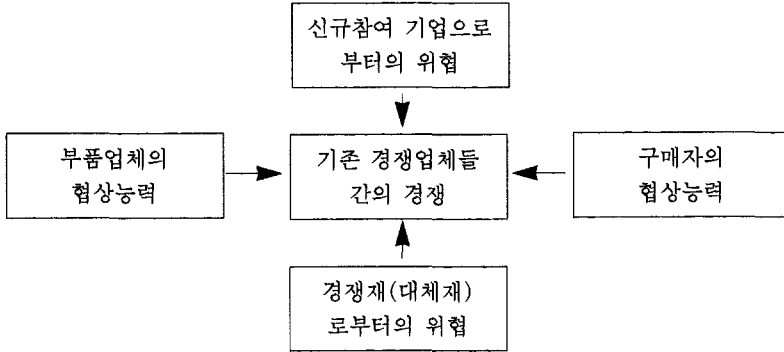
일본인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카메라 산업이 크게 발달했다. 그리고 일본인은 글자가 복잡하여 워드프로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로 손으로 글씨를 써야 했으므로 복사기, 팩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이 발달되었다. 펜이나 붓

글씨가 일본문화의 중요부분임으로 일본인은 펜, 연필, 붓 등 문방관련 산업이 잘 발달되었다. 그러나 국방산업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국방산업은 크게 발달되지 않았다. 보건산업에 있어서도 일본인들은 영양제를 많이 마심으로 드링크류가 많이 발달했다. 드링크류의 제품이 많이 수요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일 정도이다. 드링크류를 포함하면 1인당 약품 소비량에 있어서는 일본이 세계제일이다. 그리고 인종이 같고 기후나 문화가 같고 음식이 같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이 비슷비슷하다. 때문에 다양한 의료산업이나 제약산업의 발전은 어렵다. 일본은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취약하다.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국제비즈니스 서비스를 잘 못하며 금융 서비스는 정부규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기업 서비스도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생선회를 먹는 등 일본의 특유한 수요구조 때문에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 햄버거나 후라이드 치킨 등 미국의 패스트 후드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의 식품산업이 일본에 발붙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본은 좁은 주거공간 때문에 미국식으로 넓은 집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TV나 전자제품, 가구 등의 발전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산업들은 다른 산업의 아주 세련되고 까다로운 고객이 된다. 그러므로 관련산업의 부품이나 장치산업의 질을 세계 수준으로 높인다. 국내소비수요와 산업수요 모두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 4.3. 企業의 戰略과 構造 및 競爭性

미국의 기업은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공격적 마케팅에 있어서 세계제일이다. 그리고 대규모기업경영이나 관리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들이 신규기업을 창설한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기본 성향은 모두 강한 모험심이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른바 '實勢 家臣그룹 또는 主體勢力' 이 아니다. 미국에는 주체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모험심과 도전이 사회 활력의 원천이 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정직한 패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동정도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강한 모험심으로 기업을 일으켰다가 패배하면 다시 기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 승리하여 국민들은 모두 자신감에 넘쳐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미국인으로 하여금 많은 신규기업을 창설토록 했다. 그리고 미국기업의 구조는 個人主義的 性向 때문에 개인위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자도 개인이나 또는 개인을 위한 연금공단 등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극히 예민하며 또한 短期的인 株式投資를 중시하므로 분기별 이익을 중시한다. 그리고 기관투자자는 주가 변동에 따르는 자본이득에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율이

〈表 4〉 産業競爭의 5大 決定要因



높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짧아진다. 그리고 거래 비용도 낮기 때문에 거래가 많게 된다. 또한 미국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인수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가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미국은 경제가 개방되어 있고 또한 자유경제체제이므로 국내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일본과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여 미국의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일본기업의 전략은 주로 표준화와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이다. 이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의하여 잘 나타난다. 일본기업의 목표는 단기이윤을 중시하는 미국기업과는 달리 市場占有率의 확대이다. 이는 종업원을 종신고용하는 기업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일본기업은 국내에서는 경쟁자와 그야말로 목숨을 걸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일본은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산업의 경쟁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모두 잘 작용하므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면 외국기업과는 경쟁을 쉬어가면서 할 정도로 쉽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내시장의 판매 마진은 해외시장의 판매 마진에 비하여 아주 적은 편이다. 일본정부는 재봉틀, 팩시밀리 등의 표준화를 일찍 추진했고 또한 표준산업분류 제도를 통해서 부품의 표준화도 빨리 했다. 일본기업들은 국내경쟁이 치열하므로 선두주자가 자주 바뀐다.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신제품이 나와서 크게 히트만 하면 경쟁회사간의 판매도가 바뀐다. 그러므로 일본기업들은 신제품개발에 사운을 걸 정도이며, 따라서 전 회사원이 경쟁회사를 때려잡고 앞서는 운동에 적극 나선다. 치열한 국내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동화나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부품산업발전이나 인력연수 등을 철저히 하도록 만든다. 일본기업의 창설은 흡수합병보다 기존기업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종신고용제하의 종업원의 재배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와는 달리 개인이 신규기업을 창설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그리고 대기업 근무자가 이직하여 신규기업을 창설하는 경우도 적다. 대기업들이 신규기업을 창설한다. 말하자면 문어발 식으로 확장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종합상사인 미쓰이 물산의 자회사의 수는 1,000개가 넘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기업에는 戰略이나 構造 및 競爭面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요약한다면 미국기업은 우선 목표가 단기이익의 극대화이고 일본기업의 목표는 세계시장점유율의 확대이다. 또 미국기업은 개인주의적인 기업이므로 어느 기업이나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은 공동체주의적인 기업이므로 회사내부에서도 종업원간의 공동체의식이 강하며 또한 회사외부에서도 많은 경우 기업그룹이나 케이레쓰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경쟁은 치열한데 경쟁은 주로 미국기업과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국내 일본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막론하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모두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 4.4. 關聯 및 支援産業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 및 지원산업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및 지원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모두 개인주의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최종제품, 부품, 기계 등의 관련서비스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경쟁력이 높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전자는 실리콘 벨리, 자동차는 디트로이트, 소형 컴퓨터는 보스턴, 제약과 의료산업은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각각 집중되어 있다.

각종 산업의 지원산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모두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전자산업이다. 기계장치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산업들도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경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원 및 관련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관련 및 지원산업들이 같은 기업그룹 내의 회원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 기업과 자회사 또는 하청업체 관계로서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기업들은 다각화할 때 다른 기업체들을 吸收合併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일본기업은 相互出資 때문에 흡수합병이 잘 안된다. 그리고 다각화는 기존기업의 업종 다각화가 특징이다. 예를 들면 카메라회사가 복사기회사로, 복사기회사가 팩시밀리회사로, 재봉틀회사가 타자기회사로, 기계공구회사가 로봇 산업으로, TV회사가 VCR회사로 다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일본기업은 보통 특정제품의 시장이 포화상태가 될 때 다각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경쟁회사들도 모두 다같이 다각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팩시밀리생산에 니콘, 캐논 등 모든 카메라회사는 물론 후지쓰, NEC, 오오끼 등 정보통신회사도 마찬가지로

로 달려들었다. 이들 신참 기업들은 모두 다른 기술과 경험을 갖고 경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은 아주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기업그룹의 상호출자 때문에 회원 사들은 한 식구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본의 케이레쓰 계열회사간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일본 특유의 기업조직 및 관련산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總合商社이다. 종합상사는 다른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일본특유의 제도로써 많은 산업이 모회사인 종합상사의 자회사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미쓰이 종합상사의 1,000개가 넘는 자회사들은 하지 않은 산업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일본에는 정보매체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상업 TV광고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이다. 그리고 세계수준의 많은 일간 신문 특히 경제신문은 경제정보의 신속한 공급 및 보급기관이다. 일본기업은 이런 정보기관의 도움을 잘 받고 있다. 일본경제는 관련 및 지원산업이 뿔뿔 뭉쳐진 아주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산업이 뚫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뚫어도 끼어 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각종 협회 케이레쓰 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근접성, 공동체주의적 의식구조 등이 모두 일본경제를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경제가 되도록 만든다.

#### 4.5. 政府의 政策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직후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때 미국기업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었고 미국산업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기업을 별도로 육성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과 같은 기업정책이나 산업정책이 없었다. 미국의 企業政策을 꼽는다면 단지 독점금지법을 통해서 기업간의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미국은 각종 산업에 대해서 직접 통제를 하지 않고 주로 間接支援을 했다. 간접지원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요소 창출이다. 미국은 주정부나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 모두 교육과 과학 및 사회간접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산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촉진시켰다.

둘째는 경쟁의 촉진이다. 독점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자유 개방적 무역정책으로 국내의 경쟁을 촉진시켰다.

셋째 우주탐험, 환경보호, 의료보전 등의 정책으로 관련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넷째 해외에서 미국의 국익과 자본주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의 보호정책을 폈다. 이는 자유무역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섯째 국방계획을 통해서 국방관련산업을 지원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에 간여한 경우이다. 선진국 중 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각종 산업정책을 통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많은 노력을 했다. 日本政府의 役割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각종자원을 특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 투자 했다.

둘째, 환율을 수출에 유리하게 유지해 왔다.

셋째, 각종 보조금등으로 일본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했다.

넷째, 외국의 신규기술 도입을 촉진했다.

다섯째, 외국기업의 일본국내진출을 억제했다.

일본정부는 구체적인 산업정책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공문서에 팩시밀리 사용을 조기에 허락하여 팩시밀리 산업발달을 촉진시켰다. 로봇트 사용을 촉진하여 일본은 세계 제일의 로봇트 보유국가가 되었다. 국민학교로 하여금 피아노를 가르치게 함으로써 일본 피아노 산업이 세계 선두주자가 되도록 도와주었다.

일본 정부의 특이한 역할은 信號의 機能이다. 수많은 정부 보고서, 각종 산학 협동보고서, 정부의 홍보물, 특히 통산성의 정책 홍보물 등은 수많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켰다. 또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개발정책 등도 같은 예이다. 최근에는 신호의 기능이 일본정부의 보다 중요한 신 기능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정부의 공헌은 각종 산업정책의 틀을 산업발전 단계에 맞게 아주 융통성 있게 변화시켜왔다. 일본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 세계제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잘못된 분야도 많다. 화학과 플라스틱, 항공 우주,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산업 등이 그 예이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는 산업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억제시켰다. 또한 유통업을 낙후시켰고 대형유통점의 지점개설 제한법으로 소형 소매상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등 유통업을 낙후시켰다.

#### 4.6. 環境的 및 偶發的 要因

국운과 산업운 등 運 또는 우발적 요인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지금은 경제환경 급변의 시대임으로 경제환경의 변화여부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산업의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인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미국은 이미 1920년대에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의 산업에 있어서 세계선두주자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나라전체에 위기감이 조성되어 각종 산업 특히 방위산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킨 결과 각종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확

대되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 하우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전세계에 있는 미군들에게 코카 콜라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는 코카 콜라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코카 콜라는 전세계 심지어 공산권국가들에도 보급되었다. 현재 코카 콜라는 세계 197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카터 필러 중장비 회사는 미군이 외국에서 철수하고 남겨 놓은 장비 활용을 위하여 해외에 많이 진출했다.

일본의 경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적 및 우발적 요인은 韓國의 6.25動亂의 발발이다. 6.25동란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은 일본을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파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6.25동란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일본을 도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또한 6.25동란이 발생하자 일본경제는 전쟁경기 특수 붐을 맞이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1953년에 일본경제는 완전히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본의 환경적 요인은 1964년도에 개최된 도쿄 올림픽이었다. 이 올림픽으로 일본의 각종산업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때 세이코 시계는 올림픽 공식 시계로 선정되어 전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또한 그때 전자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막 출발하는 단계였다. 때문에 일본도 다른 선진국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기에 시작되어 후발국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닉슨쇼크 오일쇼크 등 수많은 우발적 요인도 일본경제와 산업의 구조 조정을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아울러 국제경쟁력도 높이는 역할을 했다.

## 5. 結 論

미국과 일본은 국가경쟁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선진국 중 미국은 각종 자연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이나 일본은 가장 빈약한 나라이다. 미국은 기존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고 또한 없는 요인을 창출함으로써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없는 자원의 불리성을 잘 극복하고 또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기를 수 있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다종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세운 나라이고 또한 개인주의적 국가이므로 미국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하나 하나가 독자적,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후발 선진국인 일본은 유럽선진국이나 미국을 따라 잡기 위하여 기업들이 서로 모여 힘을 합쳐서 케이레쓰나 그룹을 만들어 성장하며 경쟁했다. 되풀이하면 미국의 기업은 개

인주의적 기업, 일본의 기업은 공동체주의적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 미국은 부존자원과 창출된 자원을 다같이 잘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므로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일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앞서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창출된 요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산업과 경쟁력의 차이를 계속 크게 줄여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산업에 있어서 미국을 오히려 크게 앞서고 있다.

수요조건으로 보면 미국에는 다종다양한 인종, 다종다양한 기후, 다종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에 없는 산업이 없다. 또한 미국의 산업들은 모두 국제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인종, 같은 기후, 같은 문화 때문에 국내수요의 다양성은 미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러나 일본은 일찍부터 해외 주도형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국내수요의 불리성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도 미국기업들은 초기 단계에는 방대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판매를 주요 전략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판매를 주요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미국기업은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중시하나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점유를 확대 전략을 중시했다.

기업의 구조를 보면 개인주의적인 미국기업의 경우는 기업내부의 각 부서간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분리, 대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공동체주의적 사상이 강하여 기업내부의 각종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잘된다. 그리고 단독기업인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차원의 단독전략밖에 없으나 기업이 그룹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단독기업전략과 기업그룹차원의 전략이 다 있다.

관련 및 지원산업의 경우 미국에는 수많은 산업들이 모두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도 관련산업이나 지원사업이 잘못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도 유통산업부분이 약하고 또 국제 마케팅이나 기업 서비스 등의 관련산업이 약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 관련산업이 세계수준으로 잘 발달되어 있음으로 각종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보면, 미국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보다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한다. 또한 미국 국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산업에 대한 정부 간여가 제일 적은 나라가 미국이다. 또한 미국의 기업과 산업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국제경쟁력이 세계수준을 유지했으므로 미국은 일본

과 같은 기업정책이나 산업정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점금지법을 통해서 기업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후발 주자인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하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외국산업의 일본진출도 막으려고 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볼 때 미국과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그 요인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국토조건 또 세계 속에서의 위치 등의 요소가 작용하여 미국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갔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하여 많은 불리한 조건 등이 있었으나 이 불리한 조건을 잘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62

팩시: (02)886-4231

### 參 考 文 獻

박진수(1994):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한 포터이론의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연구소(1994a): "3대 선진국(G3) 국가경쟁력에 대한 연구, 제1권 일본·독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연구소(1994b): "3대 선진국(G3) 국가경쟁력에 대한 연구, 제2권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조동성 편저(1992): 『국가경쟁력: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매일경제신문사.

Bradley, Stephen P., Jerry A. Hausman, and Richard L. Nolan (eds.)(1993): *Globaliz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George, Robert Lloyd (1992): *The East-West Pendulum*, New York, Woohead-Faulkner.

Glickman, Norman J., and Douglas P. Woodward (1990): *The New Competitions*, Basic Books.

Imai, Kenichi, and Ryutaro Komiya (eds.)(1994): *Business Enterprise in Japan: Views of Leading Japanese Economists*, The MIT Press.

-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1994): *US and Japan in Figures III*, 經濟編.
- Krugman, Paul (1994):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March/April.
- Lodge, George C., and Ezra F. Vogel (1987): *Ideolog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 An Analysis of Nine Coun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and WEF (World Economic Forum) (1993, 1994, 1995):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 Porter, Michael E. (1986):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_\_\_\_\_(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 Prestowitz, Clyde V., Lester Thurow, and Others (1994): "The Fight Over Competitiveness," *Foreign Affairs*, July/August.
- The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University Press.